

女高生の 性格特性과 衣服選擇 要因과의 相關關係 研究

—서울 市內 女高生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the Factors for Clothing Selection among the High School Girls

建國大學校 自然科學大學 衣裳學科

專任講師 鄭 夏 信

Dept. of Apparel Design, College of Natural Science, Kon Kuk University

Instructor; **Ha Sin Chung**

<目 次>	
I. 緒 論	IV. 結果 및 論議
II. 理論的 背景	V. 結 論
III. 方法 및 節次	參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the factors for clothing selection.

For the test, 396 high school girl students in Seoul were selected, respectively.

The General Personality Test sheets by Kim Giseok and the questionnaire based on Park Eunju's study on the factors for clothing selection were given to the sample group.

Then the test result was computerized in analysing the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Behavior of clothing selection according to expression of individuality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scendancy and sociability at the level of .001, and with emotional stability at .05.

2) Behavior of clothing selection according to utility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responsibility and emotional stability at the level of .01.

3) Behavior of clothing selection according to economy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scendancy and self-confidence at the level of .01, and with responsibility and sociability at .05.

4) Behavior of clothing selection according to modesty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scendancy and sociability at level of .001, and with self-confidence at .01.

5) Behavior of clothing selection according to conformity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scendancy, emotional stability, and self-confidence at the level of .001, and with sociability at .05.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衣服은 個人的 外的 特性은 물론 內的 特性까지 나타내주는데, Kefgen¹⁾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衣服은 대부분 自身에 關係 가지고 있는 概念과 그들의 個性을 반영하며, 個人이 각각의 獨특한 方法으로 環境에 적응해가는 自己表現이라고 하였다.

Ryan²⁾은, 身體的으로나 心理的으로 變化가 많고 自我意識이 강한 靑少年들은 衣服과 外貌에 대한 그의 關心이 높아져서 衣服을 社會適應의 手段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와 情緒의 不安에 싸여있는 과도기적 시기인 靑少年기에 처해있는 靑少年들로 하여금 社會的 滿足을 위한 衣服着用方法和 衣服行動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擧게 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靑少年, 특히 中·高等學生들은 1982년에 실시된 校服自律化로 靑少年 衣生活의 일대 전환점을 겪었으며, 아직도 시행착오 단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過渡期的 時期에 있어서 靑少年, 특히 女高生들의 性格特性이 그들의 衣服選擇行動과 어떤 關係가 있는지를 밝히고 그들의 衣生活指導의 方向을 모색하는 것은 的의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本研究를 시도하였다.

2. 研究의 目的 및 範圍

1) 研究의 目的

本研究에서는 女高生을 對象으로 그들의 衣服選擇要因과 性格特性의 關係를 조사하려 하며, 研究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女高生들의 性格特性을 조사한다.
- ② 女高生들의 衣服選擇要因을 알아본다.
- ③ 女高生들의 衣服選擇要因과 性格特性과의 相關性을 규명한다.

2) 研究의 範圍

衣服選擇要因과 心理的 要因과를 결부시켜 연구하는 問題는 그 領域이 매우 다양하지만 本研究에서는 衣服選擇要因과 性格特性과의 相關性을 연

구하는데에 주로 그 範圍를 한정시켰다.

衣服選擇要因에 있어서는 朴銀珠³⁾의 衣服選擇基準을 참고로 하여 5個의 下位尺度인, 個性表現, 實用性, 經濟性, 貞淑性, 同調性으로 區分하였다.

性格檢査는 本 研究內容에 相當하다고 생각되는 支配性, 責任性, 情緒의 安定性, 社交性, 自信感 등을 알아보기 위한 金基錫⁴⁾의 一般性格檢査를 사용하였다.

II. 理論의 背景

1. 女高生의 性格特性

李恩英⁵⁾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教育制度나 生活方式을 볼 때, 中·高等學校時期를 靑年前期, 大學時期를 靑年後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靑年前기에 속해있는 女高生을 인간 발달 단계에 있어 靑少年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張秉琳⁶⁾은 靑少年의 特性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欲望이 증대하고 여러가지의 知的, 感情的 作用이 兒童期에 비해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면서도 兒童期에 어느 정도 통합되어 精神作用間에 조화되고 통일 되었던 性格이 다시 파괴되어 그 統一性을 상실하는 수가 많다고 하였다. Ryan²⁾은, 靑少年들은 쉽게 무비판적이 되고 刺戟을 받으며, 다른 靑少年들의 行爲에 동조하도록 강요받는 경향이 있으며, 性的 關心이 증가되어 同性보다도 異性에 대한 適應力을 배워가는 時期로서 自身の 秘密을 중시하고 異性에 대해 差別히 關心을 갖기 시작하는 時期에 속해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들은 언제나 自身이 他人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에 몸과 行動이 자유롭지 못하여 그로 인해 부끄러워진다고 할 수 있다. Hurlock⁷⁾은 靑少年들의 부끄러움은 그들의 身體의 不技巧性과, 지나치게 발달된 自我意識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들은 行動과 心理狀態가 파란한 뿐 아니라, 동요가 심하고 흥분하기 쉬워서 情緒가 불안정하고 對人關係의 適應도 순조롭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정연석⁸⁾은 말하였다. 李恩英⁵⁾은, 靑少年期の 男女는 情緒的으로 동요하기 쉬우며 自身을 영웅시하는 자기도취의 感情과 自身을 잃는 열

등감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 青年을 지배하며, 특히 感情이 격렬하고 지극히 예민하여 쉽게 感情의 상처를 입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靑少年들은 自身에 대해 불확실하고 감상적이기 때문에 衣服에 따른 동요가 심하여 衣服에 대한 心理的 依存性(psychological dependence)이 커지게 된다.

2. 性格特性과 衣服選擇要因

1) 支配性和 衣服

김제한등⁹⁾은 靑少年들은 對人關係에 있어서 他人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현저하고 家族數가 적은 家庭에서 성장하는 子女일수록 支配性이 높다고 하였다.

Kelley등¹⁰⁾의 研究에 의하면, 支配的인 性格이 강한 靑少年은 自身의 衣服을 높이 평가하고 自身의 身體의 特性에 대한 自信感(self-confidence)도 높았다고 하며, 朴光姬¹¹⁾는 支配性이 높은 사람은 集團에서 指導的이고 支配的인 位值를 차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衣服에 있어서 他人과 다른, 좀더 個性的인 衣服을 중요시하며 自身의 衣服에 대한 自己評價도 높다고 그의 研究에서 지적하고 있다. Darden¹²⁾은 性格과 衣服行動의 關係에 대한 研究結果에서, 支配性 및 情緒의 安定性은 衣服의 個性和 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earson¹³⁾은 衣服色의 選好에 있어서 넓은 範圍를 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情緒的으로 安定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2) 責任性和 衣服

김성태¹⁴⁾에 의하면, 責任感은 맡은 일에 집착하여 이를 완수하는 것으로, 民主的인 子女 養育方式은 子女들에게 責任感을 갖게 해준다고 하였다.

李仁子¹⁵⁾는 良心의이고 忍耐力이 있으며 성실하고 規則을 잘 지키는 사람, 즉 責任感이 강한 사람일수록 衣服에서의 審美性, 貞淑性, 關心性 注意性, 管理性, 認定性, 依存性에 關心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衣服의 經濟性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양심적, 효율적, 지성적이며, 꼼꼼하고 주의깊고 責任感이 강하다고 Aiken¹⁶⁾은 보고하고 있다. 劉寬順¹⁷⁾이 女子高等學校 學生들의 性格特性과 衣裳興味간의 相關關係를 연구한 결과, 責任感이 높

은 사람은 衣服構成 및 製作에 관한 흥미와 衣類 및 악세서리 쇼핑에 관한 흥미 등과 正的인 相關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3) 情緒的 安定性和 衣服

Anderson¹⁸⁾은, 애정질은 父母를 가진 자가 협조적이며, 情緒面에서도 보다 안정된 자가 많다고 했으며, Ryan²⁾은 情緒를 고려한 衣服을 착용함으로써 安定感을 소유하게 되며 따라서 衣服은 着用者의 情緒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要因이 된다고 하였고, 姜周泰¹⁹⁾는 靑少年期에 나타나는 情緒의 不安의 要因中 중요한 것으로, 옷맵시나 態度에 缺陷이 있다고 하였다. Ryan²⁾은 역시 衣服이 着用者의 氣分과 行動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情緒에 까지도 영향을 주어 옷을 잘 입었다고 느낄 때, 더 活動的이며 安定感이 있었고, 잘못 입었다고 느낄 때 수줍어하고 불안해 한다고 하였다. 嗜好色과 性格과의 關係에서 차가운 느낌의 色相을 좋아하는 사람은 教育程度가 높고 情緒的으로 매우 안정된 사람이라고 Faber¹⁹⁾는 설명하였다.

4) 社交性和 衣服

靑少年期에는 동료집단에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동료집단이 지니는 價値觀과 文化에 쉽게 적응하려 하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集團에서 이단시된다. 따라서 Rea²⁰⁾는 동료집단에서 거부당한 衣服을 착용한 사람은 부정적인 自我概念을 갖게 되어 非社會的이 된다고 하였다.

李仁子²¹⁾는 옷의 選擇에서 옷감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安定性이 높고 社交性이 높다고 하였고, Ryan²⁾은 衣服에서 편안함에 重點을 두는 사람은 自己統制的이고 社交的이며 權威에 복종적인 경향이 있고, 衣服의 同調性에 重點을 두는 사람은 성실하고 도덕적이며 사교적인 경향을 지닌다고 하였으며, 李仁子²²⁾는 또한 他人으로부터 外貌를 높이 평가받는 사람들은 낮게 평가된 사람들보다 社交的이고 開放的이며, 衣裳에 關心이 있는 사람은 그의 衣裳을 과시하는 方法을 이용하여, 보다 社交的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Compton²³⁾은 外向的이고 開放的이며 社交的인 사람은 짙은 색이나 어두운 색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5) 自信感和 衣服

Rosencranz²⁴⁾는 衣服을 表現的 機能과 道具的

機能面에서 볼 때, 우월감의 충족수단이 될수 있다고 하였다.

Russel²⁶⁵은 靑少年期の 少女들은, 더 성숙하거나 自信感이 강하게 발달할수록 衣服에 있어서, 준거집단에 대해 적게 동조한다고 했으며, Morton²⁶⁶은 衣服이 우리에게 自信感, 자존심, 유쾌함과 자유를 주도록 도와주고, 自意識과 부끄러움과 민감함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Smucker²⁷⁰등은 自信感이나 自己確信을 가질수록 개성적인 衣服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Ⅲ. 方法 및 節次

1. 測定道具

1) 一般性格檢査

本 研究를 위하여 金基錫의 一般性格 檢査를 사용하였는데, 下位尺度는 支配性, 責任性, 情緒의 安定性, 社交性, 自信感등 5個 領域이다.

2) 衣服選擇要因調査

朴銀珠의 研究를 기초로 하여 本 研究者가 보완한 質問紙를 사용하였다.

衣服選擇要因別 下位尺度는 5個로서, 個性表現, 實用性, 經濟性, 貞淑性, 同調性 등이며, 각각 9個의 問項으로 되어있고 5단계 평정법으로 하였다.

2. 調査對象

本 研究의 對象은 研究者의 편의상, 調査가 용이하고 時間의 절약을 위하여, 임의로 서울市內 3個 女子高等學校를 선택하여 2學年에 在學中인 女學生 396名으로 하였다.

女高中生을 調査對象으로 한 理由는 1983년부터 실시된 校服自律化 시책으로 女高中生들의 衣服選擇 및 衣服行動 등의 衣生活에서의 變化가 있으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3. 資料處理

一般性格檢査는 檢査要綱에 따라, 채집하여 얻은 원점수를 규준점수화한 후 平均과 標準偏差를 내어 全體 調査對象者의 性格特性을 분석하였다.

衣服選擇要因別 點數는 各 問項에 응답한 값을

下位尺度別로 平均과 標準偏差를 내어 選擇要因의 順位를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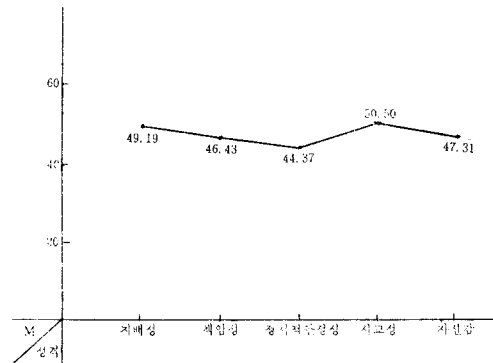
衣服選擇要因과 性格特性間의 相關關係를 알기 위해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product-moment correlation)를 내었는데, 모든 統計는 KAIST에서 IBM 3032에 설치된 統計分析 package SAS를 이용하였다.

Ⅳ. 結果 및 論議

1. 女高生의 性格特性

〈표 1〉 性格特性的 順位

성격 M,S.D.	지배성	책임성	정서적 안정성	사교성	자신감
M	49.19	46.43	44.37	50.50	47.31
S/D	28.00	29.64	28.18	28.70	28.74



〔도표 1〕 性格特性的 順位 비교

〈표 1〉은 調査對象者의 各 性格特性的의 平均과 標準偏差를 나타낸 것이다.

平均을 비교해 볼 때 社交性의 點數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支配性, 自信感, 責任性, 情緒의 安定性의 順序였다.

특히 다른 性格特性에 비해 情緒의 安定性의 點數가 낮은 것은 인간 발달단계에 있어서 情緒變化가 가장 심한 靑少年期の 思春期의 特性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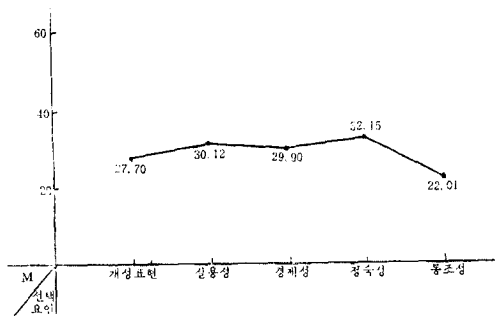
또한 社交性的 點數가 높은 것은 女高生들의 日常生活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學校生活에 있어서 交友關係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支配性的 點數도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靑少年들이 對人關係에 있어서 他人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理論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표 1]은 <표 1>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 女高生の 衣服選擇要因

<표 2> 衣服選擇要因의 順位

의복선택요인 M, S.D.	개성 표현	실용성	경제성	정숙성	동조성
M	27.70	30.12	29.90	32.15	22.01
S.D.	4.67	3.98	3.41	3.68	3.67



[도표 2] 衣服選擇要因의 順位 비교

<표 2>는 調查對象者의 各 衣服選擇要因別 平均 및 標準偏差를 나타낸 것이다.

衣服選擇要因의 平均에 있어서 가장 높은 點數를 차지한 것은 貞淑性이었으며, 實用性, 經濟性, 個性表現, 同調性의 順序로 點數가 높았다.

女高生들에 있어서 貞淑性의 衣服選擇要因의 點數가 높은 것은 女子高等學校가 다른 社會集團에 비해 폐쇄적 性격을 띠고 있으며, 韓國社會 또한 西歐社會에 비해 보수적인 데서 기인된 것이라 여겨지며, 同調性에 있어서는 自由着用에 따른 個性을 보다 중요시하여 平均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

[도표 2]는 <표 2>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3. 衣服選擇要因과 性格特性과의 相關關係

<표 3>은 女高生の 衣服選擇要因과 性格特性과의 相關係數를 나타낸 것이다.

支配性的 性格特性은 個性表現이나 經濟性과는 正的 相關을 보였고, 貞淑性이나 同調性과는 負的 相關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支配性이 강한 사람일수록 衣服選擇에 있어서 個性表現이나 經濟性을 중시하는 반면, 貞淑性이나 同調性을 중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責任性의 性格特性은 實用性이나 經濟性과 正的 相關을 보여주어, 責任感이 강한 사람일수록 衣服選擇에 있어서 實用性과 經濟性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情緒的 安定性의 性格特性은 個性表現이나 同調性과는 負的 相關을 보이고, 實用性과는 正的 相關을 보여주어, 情緒적으로 안정된 사람일수록 衣服의 選擇에서 個性表現이나 同調性을 중시하지 않는 반면, 實用性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社交性의 性格特性은 個性表現이나 經濟性과는 正的 相關, 貞淑性이나 同調性과는 負的 相關을 보여주어, 사교적인 性格의 所有者일수록 衣服選擇에 있어서 個性表現이나 經濟性을 중시하는 반면, 貞淑性이나 同調性은 중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自信感의 性格特性은 經濟性과는 正的, 貞淑性이나 同調性과는 負的 相關을 보여주어, 自信감이 높거나 우월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衣服選擇에 있어서 經濟性을 중시하고, 貞淑性이나 同調性은 중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以上の 結果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情緒的 安定性이 높은 사람은 衣服選擇時 同調性 및 個性表現의 要因을 모두 중시하지 않은 반면, 支配性이나 社交性의 性格特性이 높은 사람은 衣服選擇時 個性表現의 要因을 중시하고, 同調性의 要因은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사실은 情緒的 安定性과 衣服選擇要因과의 關係인데 이것은 情緒적으로 不安한 사람은 同調性과 個性表現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바꾸어 풀이할 수 있으며, 이는 情緒가 不安定한 사람은 他人들이 입을, 유행된

〈표 3〉 衣服選擇要因과 性格特性과의 相關係數

성격	의복선택요인	개성 표현	실용성	경제성	정숙성	동조성
지배성		.194***	.053	.136**	-.197***	-.222***
책임성		-.082	.147**	.117*	.028	-.098
정서적·안정성		-.115*	.137**	.055	.046	-.175***
사교성		.189***	-.050	.111*	-.202***	-.118*
자신감		.076	.076	.148**	-.129**	-.194**

* p<.05

** p<.01

*** p<.001

衣服을 입음으로써 心理的 安定을 꾀하는 한편, 좀 더 독특한 스타일의 衣服을 선택하여 自身의 內面으로부터의 要求인 衣服에 대한 個性的 欲求도 또한 만족시킴으로써 心理的 安定을 꾀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着用者 自身이 동료들의 衣服, 즉 外的 環境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內的 滿足 등의 양쪽 手段을 모두 동원하여 情緒安定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結果라고 생각된다.

또한 支配性이나 社交性의 性格特性이 강한 사람이 個性表現을 중시하고 同調性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他人과 구별되는 독특한 衣服을 착용함으로써 남보다 우월해지고, 自身을 돋보임으로써 他人의 시선을 끌어 人氣를 얻고자 하는 社會的 欲求의 發路라고 여겨진다.

3) 情緒的 安定性이 높은 사람은 實用性을 중시한 衣服을 선택하는 반면, 個性이 강한 것이나 너무 流行된 옷은 선택하지 않는다.

4) 社交的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個性表現이나 經濟性을 중시한 衣服을 선택한 반면, 貞淑性이나 同調性을 중시하지 않는다.

5) 自信感이 높은 사람은 經濟的인 衣服을 중시하는 반면, 貞淑性이나 同調性의 衣服選擇要因은 중시하지 않는다.

以上の 研究結果 女高生들의 性格特性과 衣服選擇要因과는 有意한 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은 研究結果가 앞으로 衣生活指導를 위한 資料로써 이용되기를 바란다.

參 考 文 獻

V. 結 論

1. 女高生들의 性格特性中 가장 강한 것은 社交性和 支配性이며, 가장 낮은 性格特性은 情緒的 安定性이다.

2. 女高生들의 衣服選擇要因은 貞淑性, 實用性, 經濟性, 個性表現, 同調性의 順序로 높게 나타났다.

3. 衣服選擇要因과 性格特性과의 相關關係는 다음과 같다.

1) 支配性이 강한 사람은 衣服選擇時 個性的이고 經濟的인 것을 중요시하는 반면, 貞淑性이나 同調性은 중요시 하지 않는다.

2) 責任感이 높은 사람은 實用性, 經濟性을 중요시하여 衣服을 선택한다.

1. Kefgen, M. and Specht, P.J., *Individuality*, 2nd ed., N.Y.: The Macmillan publishing Co. Inc., pp.45, (1976).
2.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pp.107, pp.221~228, (1966).
3. 朴銀珠, “의복선택기준에 관한 요인구조분석,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1982)
4. 金基錫, 一般性格檢査: 中, 高, 大, 一般用,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1980).
5. 李恩英, 「服飾意匠學」, 서울: 敎文社, pp.251~254, (1983).
6. 張秉琳, 「青年心理學」, 서울: 法文社, p.108,

- (1965).
7. Hurlock, Elizabeth B., *Adolescent Development*, 2nded, N.Y.: McGraw Hill Book Co. Inc., pp.79, (1955).
 8. 정연석, 「현대 청년 발달심리학」, 서울: 계동문화사, pp.73~78, (1979).
 9. 김제란, 공석영, 김충기, 「青年發達心理學」, 서울: 세광공사, pp.116, (1981).
 10. Kelley, E.A., Daigle, C.W., Lefleur, R.S. and Wilson, L.J., "Adolescent Dress and Social Particip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 pp.167~175, (1974).
 11. 朴光姬, "여고생들의 衣服行動과 性格特性과의 相關研究," 한국의류학회지, Vol. 8, No. 1, pp.13~19, (1984).
 12. Darden, L.A., "Personality Correlates of Clothing Interest for a Group of Non-incarcerated and Incarcerated Women Ages 18 to 30,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 of North Carolina, (1975).
 13. Pearson, L.H., "Teenagers' preference in clothes," *Journal of Home Economics*, No. 42, pp. 801~802, (1950).
 14. 김성태 「發達心理學」, 서울: 범문사, p.254, (1978).
 15. 李仁子, "正常人과 精神障者의 欲求와 衣服行動間의 상관관계연구," pp.12~13 에 인용된. Darden, L.A., "Personality correlates of clothing interest for a group to non-incarcerated and incarcerated women ages 18~30, Unpub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 of north Carolina, (1975).
 16. Aiken, Lewis R., "The relationships of dress to selected measures of personality in undergraduat wome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pp.119~128, (1963).
 17. 劉寬順, "性格과 衣裳興味간의 相關關係研究,"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1983).
 18. 姜周泰, 「青年心理學」, 서울: 형설출판사, p. 134에 인용된. Anderson, I.P.,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ertain aspects of parental behavior and the behavior of junior high school pupils teach coll.," *Contr. Educ.* No. 809.
 19. Faber Birren, *New horizons in color*. (N. Y.: Rinehold publishing corporation), cited by Rosencranz (1977), p.34, (1955).
 20. Rea, L.E., "Clothing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No. 19, p.718, (1950).
 21. 李仁子, "性格과 衣服 디자인 선호간의 相關關係研究," 대학 가정학회지, No. 14, pp.75~82, (1966).
 22. 李仁子, 「服飾社會心理學」, 서울: 修學社, p. 176, (1984).
 23. Campton, Norma H., "Personal attributes of color and design preference in clothing fabrics," *The Journal of Psychology*, pp. 191~195, (1962).
 24. Rosencranz, M.L., *Clothing Concepts*, N. Y.: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2).
 25. Russel, S.S., "Conformity in Dress as Expected by between Clothing Attitudes of a Selected Group of Adolescent Girl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1960).
 26. Morton Grace M., "Psychology of Dr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18, No. 10, pp.584~586, (1926).
 27. Mrs. Al Smucker and A.M. Creekmore, "Adolescents clothing conformity, Awareness, and Peer acceptance,"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Vol. 1, No. 2, pp.92~95, (1972).